

대통령 ·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중도실용주의 반대 많아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노익상 사장)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일반 국민여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치사회 인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매월 20일 전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EAI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본 여론조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사일시 : 7월 25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2.7%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여론브리핑 제53-1호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1. 이대통령 지지율 4.3%p 하락 30.5%, 중도실용주의 부정적 50.1%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상승세 꺾여, 민주당도 정체
3. [부록] 교차표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이대통령 국정지지 상승세 꺾여, 중도실용노선, 서민행보 효과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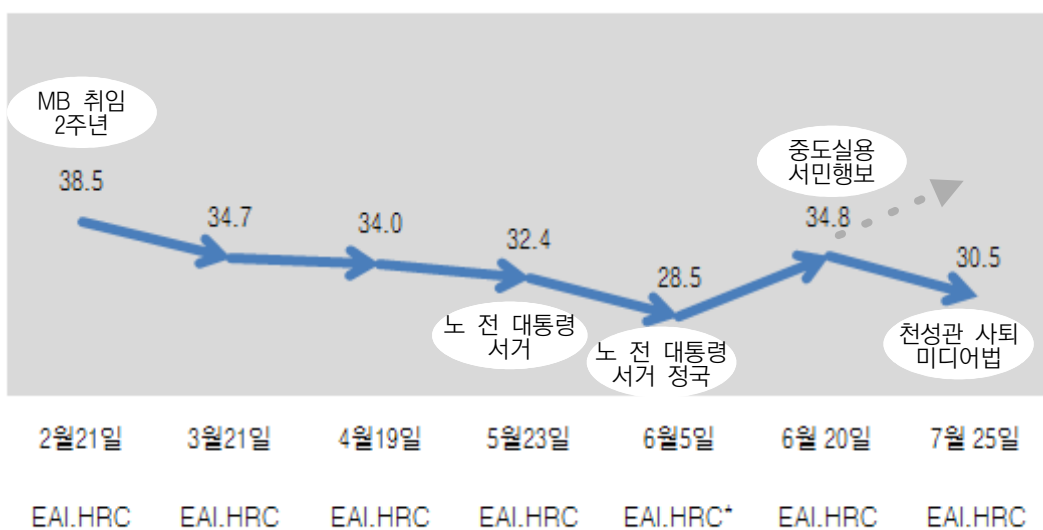
- 한나라당 지지기반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
- 중도실용노선 비판 여론 고조

▣ 이 대통령 국정지지 상승세, 한 달 만에 꺾여, 6월 대비 4.3%p 하락
 38.5%(2월)→34.7%(3월)→34.0%(4월)→32.4%(5월)→28.5%(6/5)→34.8%(6/20)→30.5%(7/21)

대통령 국정지지율 30.5%, 중도실용주의, 서민행보 후 상승 추세 꺾여
 중도실용주의 긍정평가 39.8%, 부정평가 50.1%

지난 6월 5일 노전대통령 서거 직후 28.5%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6월 20일 실시한 지난달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 34.8%까지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2차 북핵 실험으로 안보불안감이 심화되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보수층과 이탈했던 무당파 일부가 복귀한 결과였다.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서민행보를 기반으로 한나라당 자체조사로 40%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러한 상승 국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 25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0.5%에 그쳤다. 6월 대비 4.3%p 빠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7월 15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사퇴, 22일 미디어법 통과 직전까지 추가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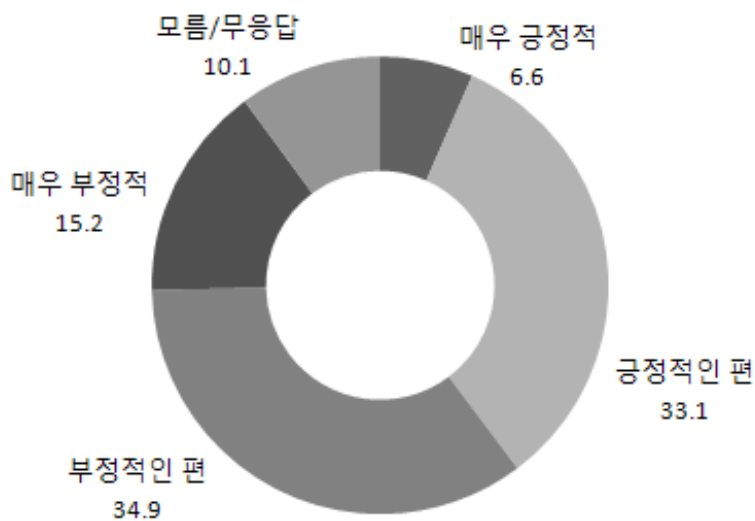
[그림1]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8%,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50.1%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7월 접어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나 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 한 때 지지율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중도실용노선이 이명박 정부가 정국반전을 추진해나가는 일종의 모멘텀이 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수라는 점은 결국 국정 주도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 중도실용주의 평가(%)



- ▣ 전 계층 별로 국정 지지율 하락,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이탈이 커
- ▣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층 (중졸, 고연령, 한나라당 지지자)에서 하락폭 커

6월 20일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지역적으로는 영남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주로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되는 계층이나 집단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 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것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퇴, 비정규직 법안 및 쌍용 자동차 사태, 미디어법 강행통과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악재가 불거지면서 중도실용노선과 서민행보로 쌓아온 점수를 상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지지이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강조해온 중도실용노선의 강조가 전통적인 보수층에게는 이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1] 사회계층별 국정지지 비율 변화 (%)

세대	조사시점		증감
	6월20일	7월 25일	
20대 이하	19.4	18.1	-1.3
30대	19.7	18.0	-1.7
40대	32.4	27.5	-4.9
50대 이상	55.4	47.8	-7.6
지역			
서울	39.4	32.5	-6.9
인천/경기	37.3	33.2	-4.1
대전/충청	30.9	20.0	-10.9
광주/전라	12.0	8.2	-3.8
대구/경북	49.4	47.8	-1.6
부산/경남/울산	34.9	37.3	2.4
강원/제주	27.3	13.9	-13.4
학력			
중졸이하	46.4	39.5	-6.9
고졸	37.5	33.5	-4.0
대제이상	29.3	22.8	-6.5
정당			
한나라당	75.0	69.4	-5.6
민주당	8.9	4.8	-4.1
무당파	29.3	26.5	-2.8

실제로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47.8%로 과반수에 근접했고,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37.3%에 그쳤다. 인천/경기지역 33.2%, 서울 지역 32.5%로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웃돌았지만 전월대비 지지율 하락폭은 인천/경기가 -4.1%p였고, 서울은 -6.9%p로 평균 하락율을 넘어섰다. 13.9%에 그친 강원/제주를 제외하면 충청권의 지지 철회 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6월 조사에 비해 10.9%p나 떨어져 20.0%에 머물렀다. 강원 및 제주가 13.9%, 호남지역이 8.2%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19.4%→18.1%), 30대(19.1%→18.0%)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40대에서는 27.5%로 6월 조사에서 기록한 32.4%에 비해 4.9%p 떨어졌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아 47.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지지율 55.4%에서 7.6%p를 하락한 결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 층에서 22.8%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가장 낮았고, 고졸 층에서는 33.5%, 중졸 층에서는 39.5%를 기록했다. 저학력 층일수록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락폭을 보면 역시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기반 역할을 해온 중졸 이하 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 6월 조사의 46.4%와 비교하면 6.9%p 하락한 결과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다. 6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 국정지지가 75.0%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69.4%로 낮아졌다. 7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4.8%에 그쳤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는 26.5%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2. 정당지지율 변화 : 한나라당 상승세 꺾이고 민주당도 하락국면

한나라당 26.9%, 민주당 21.8%, 6월 대비 각각 2.1%p 씩 빠져, 무당파 30.7%

▣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뒤 동반 침체

(한) 29.0→26.9(2.1%p ↓), (민) 23.9→21.8(2.1%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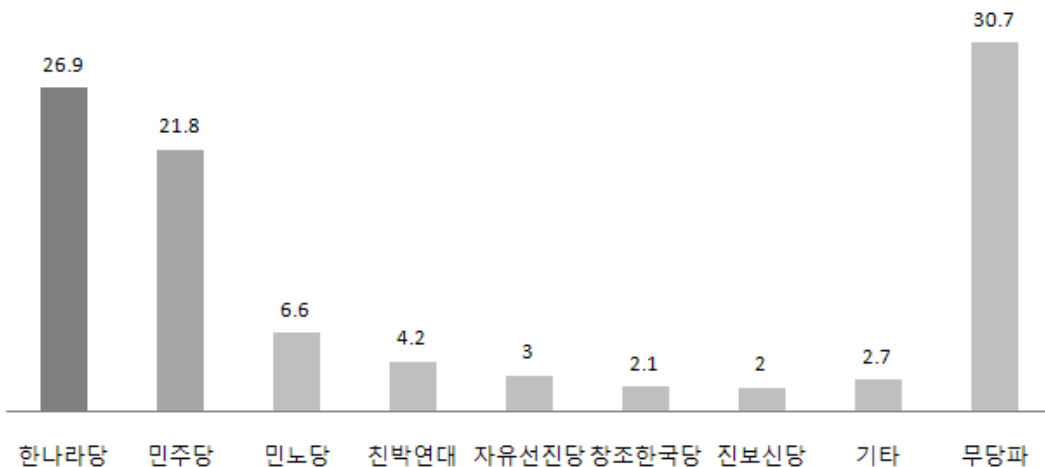
▣ 영남 한나라당, 호남 민주당 지역균열 유지, 서울은 한나라당 우세, 충청 민주당 우세

결국 비정규직법안 및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격렬하게 충돌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히 국민들의 지지를 자신했지만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은 싸늘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하강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두 배 이상 벌어지던 양 당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지만 지난 6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9.0%까지 회복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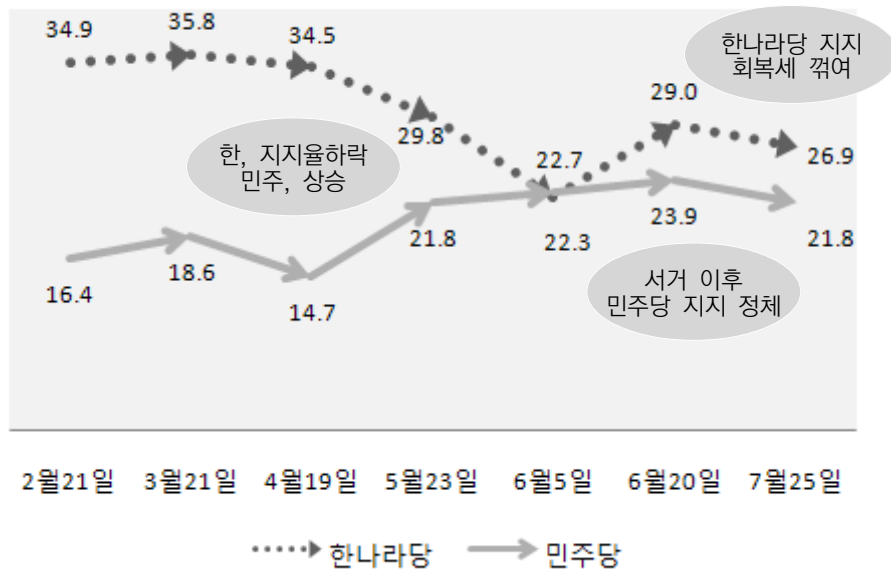
그러나 미디어법 통과 직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26.9%, 민주당 역시 21.8%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급상승 하던 지지율 곡선이 꺾이고, 민주당 역시 서거 정국 이후 20% 초반 대에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동당이 6.6%로 뒤를 이었고 친박연대 4.2%, 자유선진당 3.0%, 창조한국당 2.1%, 진보신당 2.0% 순이었다. 기타 2.7%, 무당파층은 30.7%였다.

[그림3] 7월 정당 지지율 (%)



* 7월 조사부터 친박연대를 별도의 보기로 구성하여 조사. 6월 조사 까지는 친박연대 지지율은 '다른 정당(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4] 한나라당-민주당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7월)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영호남 지역균열 유지, 서울은 한나라당 우세, 충청 민주당 우세

지역별로 정당 지지기반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TK 49.4%, PK 32.3%로 민주당에 대해 큰 우세를 보이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50.6%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전히 지역균열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도권 의 미묘한 인식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34.3%, 민주당 19.1%로 한나라당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한나라당 24.4%, 민주당 22.2%로 매우 팽팽한 상황이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의원직 사퇴와 장외투쟁라는 초강수로 반 한나라당 공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여론 향방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여전히 지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는 형국이지만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약세가 두드러진다. 대전/충청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5%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23.0%로 충청권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무당파 층이 41.7%로 가장 높아 관망하는 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자유선진당과의 연합에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강원 및 제주의 경우 전체 조사인원이 적어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6월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대체로 한나라당(21.2%)과 민주당(23.1%)간에 지지율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지역별 정당지지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서울	34.3	19.1	3.2	4.3	2.9	2.4	4.4	3.3	26.0
경인	24.4	22.2	1.8	6.6	4.8	0.9	2.5	2.1	34.8
충청	9.5	23.0	10.3	5.5	1.3	4.4	-	4.4	41.7
호남	5.3	50.2	1.2	11.5	2.2	2.8	1.2	4.9	20.7
TK	49.6	8.7	0.9	4.2	3.9	0.9	-	2.2	29.6
PK	32.6	14.0	3.5	8.2	7.6	2.1	1.4	1.5	29.3
강원/ 제주	21.2	23.1	1.7	8.8	5.9	3.1	1.7	-	34.5
전체	26.9	21.8	3.0	6.6	4.2	2.1	2.0	2.7	30.6

[표3]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7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21	34.9	16.4	2.7	6.7	-	1.5	2.5	3.1	32.2
3/21	35.8	18.6	4.0	7.1	-	3.5	2.8	2.2	25.9
4/19	34.5	14.7	3.1	6.8	-	1.8	2.9	2.1	34.0
5/23	29.8	21.8	4.2	6.4	-	1.2	2.2	3.1	31.2
6/5*	22.3▼	22.7▲	1.9▼	5.2▼	3.3	1.0▼	1.7▼	0.3	41.6▲
6/20	29.0▲	23.9▲	3.7▲	6.2▲	-	1.6▲	2.4▲	4.3▲	29.0▼
7/25	26.9▼	21.8▼	3.0▼	6.6▲	4.2	2.1▲	2.0▼	2.7▼	30.7▲
증감 ***	-2.1	-2.1	-0.7	+0.4		+0.5	-0.4	-1.6	+1.7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6월 대비 7월 지지율 증감치(%p). 오차범위가 95% 신뢰수준에 3.5%p 임을 감안하면 각 정당 지지율의 전월대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

[부록] 조사결과표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800)	100.0
○ 성 남 여	(395) (405)	49.4 50.6
○ 연 19세 - 29세	(164)	20.5
30대	(177)	22.1
40대	(181)	22.7
50대 이상	(277)	34.6
○ 학 중 고 졸 이	(114)	14.3
대 재 학 이	(270)	33.7
모름 / 무 응 답	(400)	50.0
	(16)	2.1
○ 직 농 / 임 어	(46)	5.7
자 판 매 / 영 업 / 서 비 스	(134)	16.8
생 산 / 기 타 / 노 무 직	(66)	8.2
사 무 / 관 리 / 전 문 직	(34)	4.2
주 학 무 직 / 기 타 / 무 응 답	(178)	22.3
	(168)	21.0
	(92)	11.5
	(83)	10.3
○ 가 구 소 득	(116)	14.5
100 만 원 이 하	(138)	17.3
101-200 만 원	(158)	19.7
201-300 만 원	(115)	14.4
301-400 만 원	(206)	25.7
401 만 원 이 상	(67)	8.4
○ 권 서 인 대 광 대 부 강	(170)	21.2
선 천 / / 경 기	(220)	27.5
대 전 / / 중 앙	(80)	10.1
광 주 / / 전 남	(83)	10.4
대 구 / / 전 북	(84)	10.5
부 산 / 울 산 / 경 남	(128)	16.1
강 원 / / 전 서	(33)	4.2
○ 국 국 민 이	(244)	30.5
정 정 정 평 가	(532)	66.5
모름 / 무 응 답	(24)	3.0
○ 이 이 진	(182)	22.7
진 진 진 진 진	(347)	43.4
중 중 중 중 중	(230)	28.8
보 보 보 보 보	(40)	5.0
○ 정 정 당 지 지 도	(215)	26.9
한 한 한 한 한	(175)	21.8
민 민 민 민 민	(24)	3.0
자 자 자 자 자	(53)	6.6
민 민 민 민 민	(33)	4.2
친 친 친 친 친	(17)	2.1
장 장 장 장 장	(16)	2.0
진 진 진 진 진	(22)	2.7
기 기 기 기 기	(231)	28.9
지 지 지 지 지	(15)	1.8
모름 / 정 당 무 응 답		

[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문1]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T)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잘 하고있다	②대체로 잘하고있 다	①+②	③별로못 하고있다	④전혀못 하고있다	③+④	무응/ 무응답	계
		%	%	%	%	%	%		
전체	(800)	6.1	24.4	30.5	39.1	27.4	66.5	3.0	100.0
○성별	(395)	5.6	25.0	30.6	39.2	28.6	67.8	1.6	100.0
○연령	(405)	6.5	23.9	30.4	39.1	26.2	65.3	4.3	100.0
○19세 - 29세	(164)	2.0	16.2	18.1	47.4	32.0	79.5	2.4	100.0
○30대	(177)	1.2	16.8	18.0	35.2	45.7	80.9	1.1	100.0
○40대	(181)	7.3	20.2	27.5	40.2	29.6	69.8	2.7	100.0
○50대 이상	(277)	10.8	37.0	47.8	36.0	11.5	47.5	4.7	100.0
○학력	(114)	9.7	29.8	39.5	40.3	13.1	53.4	7.1	100.0
○중졸 이하	(270)	6.9	26.6	33.5	36.7	28.0	64.7	1.8	100.0
○고졸 이상	(400)	4.0	22.3	26.3	40.5	31.7	72.3	1.5	100.0
○대졸 / 무응답	(16)	17.3	5.5	22.8	35.4	11.2	46.7	30.5	100.0
○직업	(46)	6.0	18.3	24.3	36.6	31.4	68.0	7.7	100.0
○농/임업	(134)	5.8	28.2	34.0	36.2	29.1	65.2	.7	100.0
○판매/영업/서비스	(66)	7.8	21.0	28.7	45.8	24.0	69.9	1.4	100.0
○생산/기능/노동직	(34)	7.9	27.7	35.7	41.7	22.6	64.3	.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78)	3.4	17.5	20.9	34.4	41.9	76.3	2.8	100.0
○주부	(168)	8.6	26.8	35.4	43.3	18.0	61.4	3.2	100.0
○학생	(92)	.9	21.2	22.1	49.0	28.9	77.9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83)	10.7	37.0	47.7	29.5	13.1	42.7	9.6	100.0
○가구소득	(116)	9.3	24.4	33.7	36.3	22.1	58.4	7.9	100.0
○100만원 이하	(138)	6.5	29.1	35.5	44.6	19.2	63.8	.7	100.0
○101-200만원	(158)	6.5	25.6	32.1	39.5	26.6	66.1	1.8	100.0
○201-300만원	(115)	5.2	20.7	25.9	42.7	29.6	72.4	1.7	100.0
○301-400만원	(206)	2.4	25.3	27.6	36.2	35.2	71.4	.9	100.0
○401만원 이상	(67)	11.4	16.2	27.6	34.7	27.4	62.1	10.4	100.0
○권역	(170)	4.9	27.7	32.5	41.4	23.2	64.7	2.8	100.0
○서천 / 경기	(220)	7.8	25.3	33.2	33.9	29.3	63.2	3.6	100.0
○대전 / 충청	(80)	2.6	17.5	20.0	44.9	31.3	76.2	3.8	100.0
○광주 / 전라	(83)	2.0	6.2	8.2	42.9	47.7	90.6	1.3	100.0
○대구 / 경북	(84)	10.3	37.5	47.8	36.9	10.7	47.6	4.6	100.0
○부산 / 경남	(128)	6.5	30.9	37.3	37.8	23.3	61.1	1.6	100.0
○강원 / 제주	(33)	6.8	7.0	13.9	49.0	34.0	83.1	3.1	100.0
○국정운영평가	(244)	19.9	80.1	100.0	.0	.0	.0	.0	100.0
○부정평가	(532)	.0	.0	.0	58.8	41.2	100.0	.0	100.0
○모름 / 무응답	(24)	.0	.0	.0	.0	.0	.0	100.0	100.0
○이념성향	(182)	3.0	15.8	18.8	34.0	47.2	81.2	.0	100.0
○중도	(347)	5.5	22.9	28.4	43.4	25.8	69.2	2.4	100.0
○보수	(230)	9.1	33.9	43.1	38.6	14.9	53.6	3.4	100.0
○진보	(40)	6.9	22.6	29.5	28.2	23.4	51.6	18.9	100.0
○정당지지	(215)	16.9	52.5	69.4	23.1	5.1	28.2	2.5	100.0
○국민	(175)	.6	4.2	4.8	44.1	50.6	94.7	.6	100.0
○자유선진당	(24)	3.9	25.9	29.9	33.8	36.3	70.1	.0	100.0
○민주노동당	(53)	.0	.0	.0	43.9	56.1	100.0	.0	100.0
○박근혜대	(33)	2.5	25.5	28.0	52.8	19.2	72.0	.0	100.0
○친박	(17)	.0	4.8	4.8	32.5	56.5	89.0	6.2	100.0
○창신	(16)	.0	3.5	3.5	29.0	67.6	96.5	.0	100.0
○기타	(22)	.0	17.8	17.8	56.1	21.8	77.8	4.4	100.0
○지지	(231)	3.3	22.9	26.2	48.0	21.6	69.6	4.2	100.0
○모름 / 무응답	(15)	12.8	18.0	30.8	29.1	.0	29.1	40.0	100.0

[표 2] 정당지지도

[문2] __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없음, 모름, 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T)

Base=전체	사례수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지지하 않음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	%
전체	(800)	26.9	21.8	3.0	6.6	4.2	2.1	2.0	2.7	28.9	1.8	100.0
성별	(395) (405)	25.1 28.5	23.2 20.6	3.5 2.6	6.7 6.5	3.3 5.0	2.4 1.8	2.2 1.9	3.4 2.0	28.8 28.9	1.4 2.2	100.0 100.0
연령	(164) (177) (181) (277)	21.6 17.0 21.6 39.7	21.8 26.9 23.7 17.5	2.1 2.2 3.1 4.1	7.6 13.6 6.2 1.8	2.4 3.0 3.8 6.2	2.5 2.1 2.7 1.3	2.9 3.1 3.3 .0	3.0 4.6 3.2 1.1	34.3 27.4 30.2 25.7	1.7 .0 2.2 2.8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	(114) (270) (400) (16)	35.0 28.2 24.3 11.5	25.5 23.7 20.0 11.5	3.4 3.5 2.8 .0	1.3 6.7 8.3 .0	5.8 3.1 4.3 6.2	.0 2.2 2.7 .0	.0 .2 3.9 .0	.9 2.6 3.4 .0	25.9 29.3 29.9 17.8	2.3 .4 .6 53.0	100.0 100.0 100.0 100.0
직업	(46) (134) (66) (34) (178) (168) (92) (83)	25.0 24.9 25.3 26.4 17.7 34.4 26.3 37.4	31.1 25.9 20.8 15.4 24.4 18.5 24.5 11.8	3.1 4.9 4.5 2.6 2.2 3.4 2.2 1.1	1.2 5.8 7.2 19.8 10.8 5.2 4.0 1.6	6.2 3.7 5.4 8.8 4.7 5.1 1.1 1.0	.0 .7 .0 4.5 4.6 .6 2.4 3.4	.0 .7 1.6 .0 5.3 .6 4.1 .0	2.2 5.4 3.5 .0 2.0 1.7 4.3 1.1	28.9 26.7 31.7 22.5 28.2 29.3 31.1 30.8	2.2 1.2 .0 .0 .0 1.3 .0 1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소득	(116) (138) (158) (115) (206) (67)	30.9 28.8 33.1 23.7 22.2 21.2	25.1 17.8 20.6 24.0 25.2 13.5	1.6 5.2 5.1 1.2 2.3 1.5	2.8 9.4 7.5 7.7 6.4 3.6	3.9 4.9 4.7 5.0 3.8 1.6	.9 .6 2.6 4.0 2.4 1.4	.0 1.1 .7 2.2 5.4 .0	.8 1.2 1.2 3.2 5.5 3.3	31.8 30.3 23.8 28.9 26.2 40.9	2.2 .7 .6 .0 .7 1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권선인정	(170) (220) (80) (83) (84) (128) (33)	34.4 24.4 9.5 5.3 49.6 32.6 21.2	19.1 22.2 23.0 50.2 8.7 14.0 23.1	3.2 1.8 10.3 1.2 .9 3.5 1.7	4.3 6.6 5.5 11.5 4.2 8.2 8.8	2.9 4.8 1.3 2.2 3.9 7.6 5.9	2.4 .9 4.4 2.8 .9 2.1 3.1	4.4 2.5 .0 1.2 .0 1.4 1.7	3.3 2.1 4.4 4.9 2.2 1.5 .0	24.3 33.5 37.3 19.5 24.4 29.3 34.5	1.7 1.3 4.4 1.2 5.2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정운영평가	(244) (532) (24)	61.1 11.4 22.3	3.4 31.1 4.1	3.0 3.2 .0	.0 9.9 .0	3.8 4.5 .0	.3 2.8 4.3	.2 3.0 .0	1.6 3.2 4.0	24.8 30.2 40.7	1.8 .8 24.5	100.0 100.0 100.0
이념성향	(182) (347) (230) (40)	13.5 25.6 42.5 8.1	35.7 19.7 14.1 21.6	2.9 1.8 5.6 .0	12.7 4.8 4.6 5.7	3.1 3.8 4.6 9.3	.7 3.1 2.0 .0	4.9 1.5 .9 .0	2.8 3.8 1.5 .0	23.2 35.2 24.0 27.8	.5 .7 .0 27.6	100.0 100.0 100.0 100.0
정당지지	(215) (175) (24) (53) (33) (17) (16) (22) (231) (15)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2.7%
조사기간	● 2009년 7월 25일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